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31주일 2018. 11. 4 (나해) 제2131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테레사 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30-31 참조)

사랑의 방법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는 첫째가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방법이 바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잘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장점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진정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듯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듯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기 가족,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겠지.’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바로 지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필문**



정진섭 도미니코 신부 | 병원사목부

신천지를 탈퇴한 어느 집사의 이야기 2

(2018.7.17자 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의 “탈퇴자의 눈으로 본 신천지의 실상”에서 발췌)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모락선교

신천지에서 생활하며 수민은 갈수록 ‘거짓말 제조기’가 돼 간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효과적으로 포교하기 위해 늘 ‘모락’을 꾸며야 했다. 아무나 포교하지 않았다. ‘월, 화, 목, 금요일 주 4회, 기본적으로 신천지 센터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신천지의 누구와 나이·취미·관심사가 맞을지’, ‘그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지’, 이런 생각을 잠자면서도 할 정도였다. 밖으로는 모락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성읍’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 같은 신천지의 실태도 목도했다.

신천지교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은 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나 신천지교회에서 보낸다. 아무리 스타일이 맞지 않고 원수 같던 강사와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드는 생활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불가능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도특공대로 A지역으로 와 있던 어떤 강사가 그 지역의 자매를 몰래 사귀었는데, 관계가 깊어지자 본인의 욕구만 채우고 헤어지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그 자매는 강사에게 ‘혼인빙자 간음죄’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이 사안은 지파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강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고, 그 뒤로도 그 사건은 그 강사의 신천지 활동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묻혀버리고 말았다.

신천지교회 실상의 허구

신천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사실 이만희 교주 자신이 싫어하는 것도 알았다. 신천지 실상의 인물인 유OO 씨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지 않았다고 밝혀진 일이 수민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신천지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유모씨가 외국의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찍은 모습이라는 사진과 함께 신천지 발전사 4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다가 신천지 카페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 ‘유 씨라는 이름을 가진 유학생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 틀어지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실상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야, 우리 중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그리하여 한 친구가 직접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 알아보게 되었는데, 쉽게 알려 주려 하지 않았음에도 설득을 거듭한 결과 듣게 된 학교 측의 대답은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이었다. ‘해당 연도에는 한국 유학생 자체가 한 명도 없다.’는 대답이었던 것이다. 실상의 하나가 어그러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

성모당을 성역화하다



1959년 9월 추석 전에 발생한 사라호 태풍은 대구를 휩쓸었고, 성모당 경내에 있던 아카시아를 비롯한 큰 나무는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아카시아와 측백들이 겨우 살아남아 성모당을 지켰습니다.

1961년 10월 강찬형 파스칼 신부님은 꾸리아 행사 때 신자들이 쉽게 영성체를 하도록 기존의 철책을 없애고 현재 모양의 철책을 만들었고, 행사를 위해 성모동굴 벽에 500축의 전등을 달았습니다.

1962년 4월 8일 대교구로 승격된 후 서정길 대주교님은 같은 해 5월 19일에 성모 동굴 안에 베르나데트 상을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풍우에 씻겨 공적으로 만든 내부의 돌이 썩어 허물어질 위험에 놓이자, 계산동본당 성모회 간부들은 1970년 3월 19일 성모당 보수비용 10만 원을 교구청에 전달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선 외보수를 하였으며, 1981년 8월 마모된 돌 아치와 돌등을 대리석으로 보수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2백 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구대교구에서는 1983년 6월부터 교구청 내의 성역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구청 전역에 잔디를 깔고 조명과 마이크 시설을 보완했고, 기존 화장실은 아래쪽으로 이전했습니다. 1984

년 2월 11일 드망즈 주교님의 흉상(서울대 김세중 교수 제작)을 제막했는데, 여기에는 드망즈 주교님이 1911년 대구에 부임하여 초창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모동굴을 건립하게 된 경위와 성모당 순례를 권장하는 요지의 유시(諭示)를 새겨두었습니다.

조정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역점 사업은 '구원의 신비 19처' 건립이었습니다. 각처는 무게 2~3톤의 자연석에 각 장면을 청동주물로 제작하여 가창 수몰지구에서 정식 반출된 돌에 흙을 파서 부착했는데, 각처 제작은 손선목 씨가 맡았습니다. 성모당과 성직자 묘지를 주된 배경으로 성모 영보에서부터 성령 강림까지로 이어지는 구원의 신비를 19처에 담은 것으로 1984년 5월 20일에 축성식을 갖고 공개되었습니다. 교구가 '구원의 신비 19처'를 교구청 경내에 설치하게 된 것은 평소 성모당과 성직자 묘지를 찾아 순례하는 신자들이 많음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접해 있는 성모당 담벼락은 너무 오래되고 성모당 지대보다 낮아 헐고 개축했습니다.

이러한 교구청 내의 성역화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5월 성모 성월 때 성모당을 순례하면서 각 본당 신자들이 봉헌한 봉헌금과 기타 성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리하여 성모당은 대구대교구의 상징이며 성모 마리아를 교구 수호자로 모시고 있는 교구민의 마음의 안식처이며 휴식처이고 동시에 신앙의 구심지(求心地)이요 순례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된 성모당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오래된 함석지붕을 바꾸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백화현상이 일어난 벽을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성모당은 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

기도의 창

저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하느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알려질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께 봉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봉사하도록 설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양하도록 일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인류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당신 은총 속에서 참고 일하게 하시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넷(Anthony Mary Claret 1807-1870)
대주교, 글라넷선교수도회 창설, 쿠바 복음 전파에 헌신



겸허

지혜의 숲

스스로를 진리의 추구자라고 묘사하는 어느 방문객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진리라면, 모든 것에 앞서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넘치는 열정이지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인정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독서 신명 6,2-6 제2독서 히브 7,23-28 복음 마르 12,28ㄱ-34.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복음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환호송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 10.28(일) _ 덕수성당 40주년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
- 11. 1(목) _ 사진가회 전시회 개막식
- 11. 2(금) _ 군위묘원 위령의 날 미사

- 10.28(일) _ 구룡포성당 견진성사
- 10.30(화) _ 교정 봉사자의 날 미사
- 11. 2(금) _ 교구청 성직자 묘지 위령의 날 미사

「빛」 잡지 표지 '양병주 분도의 묵상사진'

2019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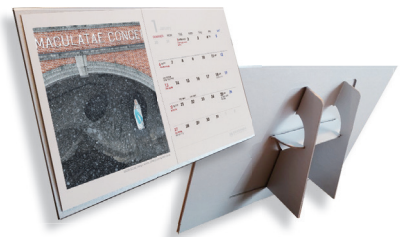
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9년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를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는 「빛」 잡지 표지를 연재해 온 사진작가 양병주 분도님의 묵상사진 작품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이즈와 거치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격 : 8,000원 (예약기간 내에 선주문하시면 1,000원 할인)

예약기간 : 10.29(월) ~ 11.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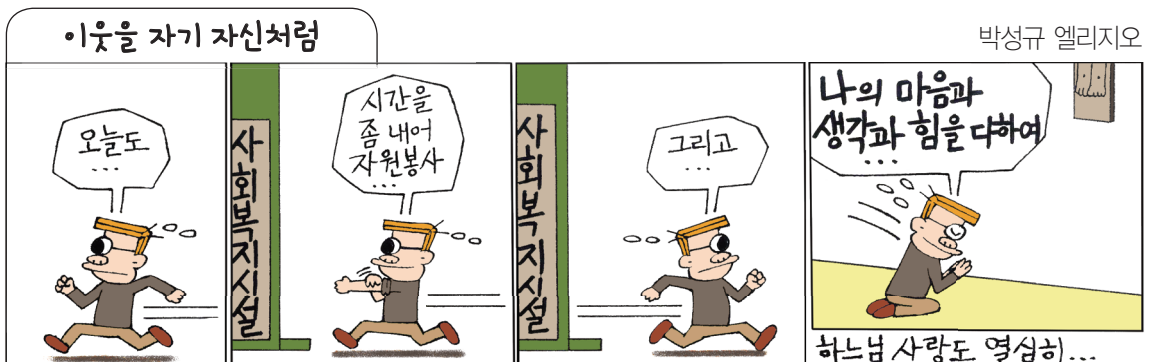
예약 및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8

※ 택배비는 별도이나 5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위령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미 사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7일(수) 19:00 용강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1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0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3일(화) 11:00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5일(월) 19:30 꾸르실리교육관	-	-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10(토) 15:30
 장소: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문의: (010)3324-0731
<http://vocation.jesuits.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0(토) 14:00
 11.11(일) 10:00,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3015-1773

12월 한티 피정

산골에서 맞는 새해(송구영신)
 일시: 12.31(월)~1.1(화)
 지도: 라마리아 수녀(한티순교성지)
 문의: www.hanti.or.kr, (054)975-5151

서울 삼성산피정의집 무료 대피정

일시: 11.9(금) 18:00~11(일) 15:00
 출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9:00
 대구시민회관 10:00
 문의: (010)8412-8083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11.12~14 / 11.18~21 (추자도)
 11.23~25 / 11.26~28 / 12.1~3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매일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1.13~16 / 11.19~22 / 11.30~12.2
 12.4~6 / 12.30~1.2 / 1.11~13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성마리아 영여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수요반: 15:00 / 금요일반: 19:00
 장소: 불로성당(수시 접수)
 과정: 창세기 마르코·요한 / 월 3만원
 친구약 전체를 통독·정독·음독·완독
 문의: 981-2035 / (010)2578-5535

바오로딸(동성로) 개축 후원 모집

만남·위로·기도의 공간으로
 교구민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 504-10-316039-6
 문의: 바오로딸, 425-5373

빛떼제 기도

일시: 11.10(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강좌

일시: 매주 금 10:00~12:30 미사포함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제: 바오로서간 2부 3편(자료제공)
 문의: (010)9333-6260

32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12.30(일) 4주 이상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1.9(금) 17:30~11(일)
 4박 5일: 11.16(금) 14:00~20(화)
 8박 9일: 11.16(금) 14:00~24(토)
 이나시오: 11.9(금) 17:30~11(일)
 문의: (031)946-2337~8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일시: 2019.1.5(토)~2.17(일) 6주
 장소: 필리핀 팍산한 마리아의아들수도원
 대상: 초4~중2 / 문의: (010)4442-4982
 주최: 마리아의아들수도회 / 비용: 420만원
<http://blog.naver.com/cficengcamp>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 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1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주전내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Yi Sang Door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광역시매 연구회 회장 역임
 개령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의원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합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성인형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35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코리아 알트만 (4F)
 대구은행 본점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터넷어 빌딩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초흔, 재흔)

가나혼인잔치

23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필곤(발라바) 신부
1928년 11월 8일
- 박춘택(베드로) 신부
2005년 11월 10일

행사 | 모임

제10회 교구 성경암송 발표대회

일시: 11.24(토) 14:00~17: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자격: 대리구 대회 부문별 입상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개관 1주년 기념 '바로크 콘서트'

일시: 11.6(화) 20: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연주: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진
입장료: 1만원
문의: 744-1394

제대꽃꽂이 봉사자

아카데미수강생 수료 전시회

일시: 11.7(수)~9(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1-1543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제3회 테마 음악회

일시: 11.9(금) 20:00, 삼덕성당
주제: 하느님의 모든 성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최: 텃징포교베네딕도수녀원
문의: (010)3621-0147

2018 추수 감사미사

일시: 11.11(일) 13: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교구청 대건인쇄출판사 앞 11:30
문의: (010)9045-0191

제18차 영남지역 CPE 가을 세미나

일시: 11.17(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11.10(토)
주제: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해와 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몽골어린이돕기 사랑나눔 콘서트

일시: 11.25(일) 16: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출연: 가톨릭음악인협회, 사제밴드 외
주최: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불린티어회
예매: 티켓링크 / 문의: 251-2631(2만원)

교육 | 모집

11월 참 신앙을 위한 토요 특강

일시: 11.17(토) 10:00~12:00

◎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 사전서류접수: 10.29(월)~11.9(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2(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1. 교적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러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7~8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오미선(아네스) / 253-9550

일본 고토 성지순례
신앙의 섬을 찾아서...
출발일: 2019년 3월 17일 (4박 5일)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출발일: 2019년 4월 1일 (3박 4일)
T. (053)253-3399
조 협 레(유스티노) 흠 미 회(안젤라)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

KHAN SUNG SPORTS
배드민턴 라켓 / 셔틀콕 / 스트링머신
각종 배드민턴 용품 / 대만,중국 OEM 생산
진금옥(아네스)
010.3153.7536 | 010.4524.4443
DdM 한성배드민턴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용역 2번출구 (충평방향 20m)

33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아토피 만성피부 특화병원
미용시술중흥인상 만들기
DALSUNG
원장 손재경(다미아노)-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무류역 2번출구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전장검진
따!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